

노년기 고독과 성격변인들과의 관계

장 휘 숙* 김 나 연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남녀 노인들(66-80세)을 대상으로 노년기 고독을 연구하고 성격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용 고독척도(SELSA)를 사용하여 사회적, 낭만적, 가족고독의 비율을 확인하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세 가지 고독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세 가지 고독과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및 자기 존중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낭만적 고독의 경험비율이 가장 높고 가족고독의 경험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세 가지 고독의 경험비율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보다 더 큰 낭만적 고독을 그리고 76-80세의 남성노인들은 여성노인들보다 더 큰 가족고독을 경험하였고, 76-80세의 남녀 노인들은 연령이 적은 두 집단보다 더 큰 사회적, 낭만적, 가족고독을 경험하였다. 71-75세 남성노인들을 제외하고 사회적 고독과 가족고독은 외향성과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정서적 불안정성은 높을수록 더 컸으며 낭만적 고독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으나 연령집단에 따라 약간의 변이를 나타내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외향성과 정서적 불안정성도 세 가지 고독에 영향을 주지만, 자기존중감은 세 가지 고독 모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주요어: 노년기,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가족고독, 성격변인

일반적으로 고독은 사회적 접촉이 부족하거나 어려울 때, 정서적 경험을 공유할 사람이 부족할 때 혹은 타인과의 실제적 상호작용과 소망된 상호작용간에 차이가 있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 정서상태로 기술되지만(Gierveld, 1998; Victor, Scambler, Bond, & Bowling, 2000), 고독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고독을 단일차원적 구성개념으로 측정하는지 아니면 중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측정하는지에 따라 고독의 정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고독을 단일차원적으로 개념화한 Russell (Russell, Peplau, & Cutrona, 1980; Russell, 1996)은 고독을 타인들과 원하는 수준의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불유쾌한 정서반응으로 정의하고 상황이나 원인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경험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애인을 두고 군대에 입대하는 군인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

* 교신저자: 장휘숙, E-mail: hsjang@cnu.ac.kr

한 사람이 경험하는 고독은 질적으로 동일하고 단지 고독의 강도나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Weiss(1973)는 고독을 단순히 혼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거나 붕괴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고독을 사회적 고독과 정서적 고독으로 구분하였다. Weiss에 의하면, 사회적 고독은 지원적인 사회적 연결망이 부재하거나 붕괴될 때 나타나고 무목적감이나 지루함 혹은 배척당하는 느낌으로 경험되는 반면, 정서적 고독은 가깝고 친밀한 정서적 애착의 부재시에 나타나며 쓸쓸함이나 불안 혹은 불안정한 느낌으로 경험된다. 그러나 처음으로 집을 떠난 대학생들에 의해 경험되는 정서적 고독과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경험하는 정서적 고독은 차이가 있으므로 DiTommaso와 Spinner(1993)는 정서적 고독을 다시 낭만적 고독과 가족고독으로 구분하였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삶의 어느 시점에서 고독을 경험할 수 있고 상황이 변화하면 고독감은 사라지지만(Lauder, Sharkey & Mummery, 2004), 사람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Ernst & Cacioppo, 1999). 따라서 고독은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고 문화나 사회가 달라져도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사회적 연결망에서 축소를 경험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나 상실이 일어나는 노년기 동안, 고독은 이 시기의 전형적 경험으로(Gierveld, 1998), 그것이 우울이나 불면증, 식욕상실 같은 신체적, 심리적 결과와 연합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Paúl & Ribeiro, 2009; DiTommaso & Spinner, 1997; Luanaigh & Lawlor, 2008). 더욱이 평균수명의 증가로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상실한 이후에도 오래 동안 생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노년기 고독의 문제는

곧 노년기 안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통계조사(통계청, 2010)에서도 고독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의 하나였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고독을 경험하는가? 노인들의 고독 경험비율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 예로서 미국 시골 노인들의 21%가 고독을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Dugan & Kivett, 1994), 미국 노인의 62%가 고독을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다(Johnson, Waldo & Johnson, 1993). 또한 타이완 시골 노인의 3.5%(Wang, Snyder & Kaas, 2001)가 고독을 경험하고 영국 노인들은 10사람 중 1사람(Forbes, 1996)이 심각한 고독을 경험한다는 보고와 함께 영국 노인들의 7%가 자주 혹은 항상 고독하다는 보고도 있다(Victor, Scambler, Bowling & Bond, 2005). 흥미롭게도 영국을 포함한 북유럽의 노인들이 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접촉을 경험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보다 더 낮은 비율의 고독을 나타낸다(Paúl & Ribeiro, 2009). 이와 같이 노년기의 고독 발생률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합분석을 실시한 Pinquart와 Sorensen(2001)은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5-15%가 빈번한 고독을 경험하고 대다수의 노인들은 심각하게 고독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단일차원적 고독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하였으므로 중다차원적 고독척도를 사용한다면 노인들이 경험하는 고독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 고독을 연구한 결과들은 고독에서 성차가 있음을 보고한다. 포르투갈 노인들을 연구한 Paúl과 Ribeiro(2009)는 여성 노인들이 남성 노인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의 고독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고독에서의 성차를 연구한 102개의 연구들을 통합분석한 Pinquart와 Sorensen(2001)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독을 경험한다고 제안하였으나 결혼상태나, 사회경제적 요인 혹은 사회적 연결망의 기능을 통제하면 고독에 미치는 성별의 효과는 감소하고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들이 주로 외로운지, 아닌지를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단일문항 고독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로운 여부를 질문하는 문항은 전통적 남성 성역할에 위배되는 정서표현이므로 남성들이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고독을 중다차원적으로 측정하면 다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독을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 그리고 가족고독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성인용 사회적, 정서적 고독척도(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s: SELSA)를 사용한 Cramer와 Barry(1999)는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으나 가족고독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독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ELSA의 단축형인 SELSA-S (Ditommaso, Brennen & Best, 2004)를 사용하여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연구한 Drennan과 Treacy, Butler, Byrne, Fealy, Frazer, 그리고 Irving(2008) 역시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고 가족고독에서만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독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므로 한국노인들의 경우에도 세 가지 유형의 고독에서 성차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독은 성별 뿐 아니라 연령과도 상관이 있다. Pinquart와 Sorensen(2001)은 고독은 연령에 따라 얇은 U자 형태의 변화를 보인다고 제안하였다. 즉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의 고독을 경험하고 이후 점차 감소하지만, 고독의 비율은 65세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75세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단일문항 척도를 사용한 Paúl과 Ribeiro(2009)의 연구에서 50-64세 집단에서의 고독 경험비율은 9.9%, 65-74세 집단에서는 16.3%, 75-84세집단에서는 20.9% 그리고 85세 이상에서는 26.8%여서 노년기 동안에도 연령에 따라 고독을 경험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독을 다차원적으로 연구할 때도 연령증가는 배우자나 파트너 혹은 친구를 잃을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그것은 의미있는 관계를 감소시킬 것이므로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은 물론(Drennan, et. al., 2008; Fahey & Murray, 1994; O'Leary, O'Connéide & Staunton, 2004) 가족고독도 증가시킬 것으로(Victor, Scambler, Bond, & Bowling, 2000) 예상된다. 더욱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긴 평균수명을 갖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홀로 생활할 가능성이 많아져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고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독에서의 연령차와 성차는 물론 양자의 상호작용 효과도 검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별이나 연령 외에도 노년기 고독과 관련된 요인들은 많이 있다. 이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고독과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배경변인들과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사별이나 이혼, 별거, 독신같은 결혼 상태와 형제자매의 상실, 친구부족, 자녀 및 친인척과의 빈번하지 못한 접촉,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 낮은 교육수준, 적은 수입, 나쁜 건강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노년기 고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Drennan, et. al., 2008; Kramer, Kapteyn, Kuik & Deeg, 2002; Paúl, Ayis, & Ebrahim, 2006; Paúl & Ribeiro, 2009; Routasalo & Pitkala, 2003; Steverink, Westerhof, Bode, & Dittman-Kohli, 2001).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노년기 동안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인생사건들이므로

그것들이 노년기 고독과 관련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년기라는 동일한 상황 조건에서도 더 많이 고독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고독을 상태측면과 특성측면으로 구별하는 연구자들은 고독이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Luanaigh & Lawlor, 2008). 고독은 진화된 인간의 특성으로 유전된다고 주장하는 Cacioppo, Hawkley, Ernst, Burleson, Bertson, Nouriani 및 Spiegel(2006)은 어떤 사람들은 고독을 경험하기 쉬운 강한 생물학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고독에 더 취약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고독을 지지하였다. 그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더 높은 수준의 고독은 더 낮은 수준의 외향성과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는 사람들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고령 노인들(85세 이상)의 경우에도 외향성은 고독을 부적적으로 예언한 반면, 불안은 고독을 정적으로 예언하였고 양자는 고독에서의 변량의 39%를 설명하였다(Long & Martin, 2000). 다시 말하면 불안한 성격을 갖는 노인들은 고독할 가능성이 더 많은 반면, 외향적 성격을 갖는 사람들은 더 낮은 수준의 고독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고독은 자기존중감과도 상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그 예로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독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 Cacioppo 등(2006)은 고독 점수가 높을수록 더 낮은 자기존중감 점수를 지닌다고 보고하였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국내 연구(박영주, 정혜경, 안옥희, 신행우, 2004)에서도 노년기 외로움은 자기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실제로 낮은 자기존중감을 갖는 개인들은 스스로 대인관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각하고 사회적으로 실패할 것으로 기대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Haines, Scalise & Ginter, 1993) 낮은 자기존중감은 개인을 고독하다고 느끼도록 하기 쉽다. 그러나 고독과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및 자기존중감의 관계를 연구한 상기의 연구들이 모두 단일차원적 고독척도를 사용하였으므로, 중다차원적 고독척도를 사용하여 노년기 고독과의 관련성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다차원 고독척도로서 DiTommaso와 Spinner(1993)에 의해 개발된 성인용 사회적, 정서적 고독척도(SELSA)를 사용하여 한국 노인들의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 및 가족고독을 연구하려고 한다. 노년기는 아동기나 청년기와 비교하여 출생동시집단 효과가 큰 시기이므로 66세부터 80세까지의 남녀 노인들을 세 개의 연령집단(66-70세, 71-75세, 76-80세)으로 구분하고 먼저 세 가지 유형의 고독을 ‘상당히’ 혹은 ‘매우 많이’ 경험한다고 응답한 남녀 노인들의 비율을 검토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고독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동시에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세 가지 고독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세 가지 고독과 성격변인들 즉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및 자기존중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중 어떤 변인이 한국 노인들의 사회적, 낭만적, 가족고독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노년기 고독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배경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체특정적 특성일 수 있음을 규명하려고 한다.

방 법

연구대상

D시에 거주하는 66세부터 80세까지의 남녀 노인들이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그들은 독립적으

표 1.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사례수와 평균연령 (괄호안은 표준편차)

성별	연령집단	N	M(SD)
남	66-70	53	67.40(1.198)
	71-75	50	73.20(1.414)
	76-80	51	77.35(1.128)
	전체	154	72.58(4.310)
여	66-70	63	66.27(1.405)
	71-75	79	73.39(1.427)
	76-80	87	78.15(1.215)
	전체	229	73.79(4.185)
전체	66-70	116	67.87(1.380)
	71-75	129	73.32(1.420)
	76-80	138	77.86(1.241)
	전체	383	73.30(4.272)

로 이동이 가능하고 청력이나 언어능력 혹은 다른 심리적 장애가 없는 노인들로서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복지관이나 다른 노인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고 있었다. 응답내용에서 일관성이 없는 노인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83명(남: 154명, 여: 229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남성 72.58세(SD=4.310)이고, 여성 73.79세(SD=4.185)였다. 연구대상자들은 3개의 연령집단으로 구분되었으므로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사례수와 평균연령(표준편차)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 중 남성노인의 79.9%와 여성노인의 37.6%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자녀를 가지고 있었으며, 남성노인의 97.4%와 여성노인의 93%는 한 명 이상의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남성노인의 31.8%가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27.9%가 중학교 졸업 그리고 40.3%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여성노인들의 비율은 각각 85.6%, 9.6%, 4.8%였다. 이와 함께 남성노인들의 60.4%와 여성노인들의 74.7%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절차

연구가 이루어진 D시는 5개 구로 구분되므로 각 구에 위치한 가장 큰 지역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각각 두 곳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과 여성회관 각각 세 곳을 선정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녀 노인들을 대상으로 1대1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사전에 충분한 훈련을 받은 2명의 발달심리학 전공의 대학원생에 의해 이루어졌다.

면접자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하루의 면접이 끝나면 두 사람의 면접내용을 검토하고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4개 척도에 대한 면접자간 신뢰도는 평균 .93으로서 면접자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었다. 면접은 2010년 1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2개월여 동안 계속되었고 면접시간은 30-40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다난한 인생사를 이야기하는 여성 노인들이나 최근의 경제상태나 시국문제로 흥분하는 남성노인들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면접이 계속되기도 하였다. 면접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간단한 선물이 제공되었다.

측정도구

고독척도

노인들의 고독을 측정하기 위해서 DiTommaso와 Spinner(1993)가 개발한 37개 문항의 성인용 사회적, 정서적 고독척도(SELSA)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 그리고 가족고독을 포함하는 이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사회적 고독 12문항(문항 예: 나는 마음이 맞는 친구를 원하지만, 그런 친구는 내게 없다), 낭만적 고독 4문항(문항 예: 내 깊은 속마음을 나눌 배우자나 이성

친구가 있다) 그리고 가족 고독 9문항(문항 예: 내게 관심을 갖는 가족은 아무도 없다)이 선정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설계되었고 어떤 문항도 ‘외롭다’ 혹은 ‘고독하다’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노인들이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 및 가족 고독을 크게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 α 로 측정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사회적 고독 .906, 낭만적 고독 .879, 가족 고독 .880이었다.

외향성과 정서적 불안정성 척도

Costa와 McCrae(1994)의 Big Five 성격검사 중에서 외향성과 정서적 불안정성 척도가 사용되었다. 외향성 척도는 원래 29개 문항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 척도는 37개의 문항을 포함하나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높은 6개의 외향성 문항(문항 예: 나는 개방적이고 사교적이다)과 7개의 정서적 불안정성 문항(문항 예: 나는 걱정이 많다)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외향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α 로 측정된 각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외향성 .836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 .841이었다.

자기존중감 척도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Rosenberg(1979)의 자기존중감 검사가 사용되었다. 이 검사는 10개의 문항(문항 예: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을 포함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형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검사에서 높은 점수는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 Cronbach α 로 측정된 이 검사의 내적 일관성계수는 .910이었다.

결 과

1. 고독한 노인의 비율

고독하다고 느끼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5점 척도로 구성된 SELSA에서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 그리고 가족고독 각각에 대해 ‘상당히 그렇다’(4점)와 ‘매우 그렇다’(5점)에 응답한 사람들을 각 영역에서 고독한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세 가지 고독에서 고독한 사람의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가족고독을 제외하고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은 연령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고 가족고독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그리고 낭만적 고독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낭만적 고독을 보고한 여성노인들의 비율은 66-70세 집단에서 46.2%, 71-75세 집단은 60.8% 그리고 76-80세 집단에서는 81.5%인 반면, 남성 노인들의

표 2. 세 가지 유형의 고독에서 고독한 노인의 빈도와 백분율

성별	연령 집단	N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가족 고독
남	66-70세	53	1(1.9%)	5(9.5%)	0(0.0%)
	71-75세	50	2(4.0%)	5(10%)	1(2.0%)
	76-80세	51	3(5.9%)	23(45%)	1(2.0%)
여	66-70세	63	1(1.6%)	29(46.2%)	0(0.0%)
	71-75세	79	4(5.1%)	48(60.8%)	2(2.5%)
	76-80세	87	7(7.9%)	71(81.5%)	1(1.1%)

표 3. 성과 연령집단에 따른 고독의 사례수와 평균(표준편차)

성별	연령집단	N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가족 고독
남	66-70세	53	2.305(.688)	2.670(.910)	1.818(.518)
	71-75세	50	2.485(.776)	2.720(1.013)	1.740(.681)
	76-80세	51	2.895(.843)	3.427(1.303)	2.383(.893)
	전체	154	2.559(.805)	2.937(1.134)	1.980(.763)
여	66-70세	63	2.306(.679)	3.635(1.158)	1.841(.619)
	71-75세	79	2.514(.805)	3.854(1.243)	1.876(.760)
	76-80세	87	2.731(.751)	4.414(.986)	1.955(.785)
	전체	229	2.539(.768)	4.007(1.170)	1.897(.732)
전체	66-70세(a)	116	2.305(.680)	3.194(1.153)	1.831(.572)
	71-75세(b)	129	2.503(.791)	3.415(1.282)	1.823(.731)
	76-80세(c)	138	2.792(.787)	4.049(1.208)	2.114(.849)
	전체	383	2.547(.782)	3.576(1.268)	1.930(.745)

비율은 각각 9.5%, 10% 그리고 45%로서 75세 이상의 여성 노인들의 대부분이 낭만적 고독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었다.

2.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세 가지 고독에서의 차이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세 가지 고독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 및 가족고독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2(성: 남, 여)×3(연령집단: 66-70세, 71-75세, 76-80세)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사회적, 낭만적 그리고 가족고독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표 4는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4에 의하면, 사회적 고독에서 연령집단의 주효과($F(2,377)=13.971$, $p<.001$)만 유의하였고, 성별의 주효과와 성별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

시한 결과, 76-80세 연령집단이 66-70세와 71-75세 연령집단보다 더 높은 사회적 고독점수를 나타내고, 66-70세와 71-75세 연령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가장 높은 연령인 76-80세 노인들이 66-70세와 71-75세 노인들보다 더 큰 사회적 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낭만적 고독에서는 성별의 주효과($F(1,377)=78.325$, $p<.001$)와 연령집단의 주효과($F(2,377)=16.908$, $p<.001$)

표 4.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 및 가족고독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F값	Tukey 사후검증
사회적 고독	성별	.322	
	연령집단	13.971***	c>a,b
	성별X연령집단	.594	
낭만적 고독	성별	78.325***	
	연령집단	16.908***	c>a,b
	성별X연령집단	.208	
가족 고독	성별	1.388	
	연령집단	9.789***	c>a,b
	성별X연령집단	5.330**	

* $p<.05$, ** $p<.01$, *** $p<.001$ 이하 동일함.

가 유의하였고 성별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높은 낭만적 고독 점수를 나타내어 노년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낭만적 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76-80세 연령집단이 66-70세와 71-75세 연령집단보다 더 높은 낭만적 고독 점수를 나타내었고, 66-70세와 71-75세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가장 연령이 높은 76-80세 노인들이 66-70세와 71-75세의 노인들보다 더 큰 낭만적 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고독에서는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집단의 주효과($F(2,377)=9.789, p<.001$)와 성별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효과($F(2,377)=5.330, p<.01$)가 유의하였다.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76-80세 연령집단이 66-70세와 71-75세 연령집단보다 더 높은 가족고독 점수를 나타내었고 66-70세와 71-75세 연령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장 높은 연령인 76-80세 집단의 노인들이 66-70세와 71-75세 집단의 노인들보다 더 큰 가족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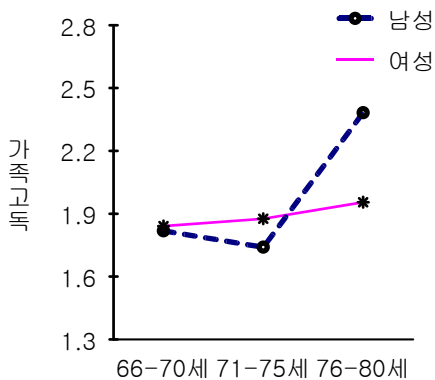


그림 1.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가족고독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1에 제시한 성별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66-70세 집단과 71-75세 집단은 가족고독에서 유의한 성차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76-80세 집단에서는 유의한 성차를 나타내었다. 즉, 가장 높은 연령인 76-80세 집단의 남성노인들은 여성노인들보다 더 큰 가족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보다 더 큰 낭만적 고독을 경험하였고 76-80세 집단의 남성노인들은 여성노인들보다 더 큰 가족고독을 경험하였으며 가장 연령이 많은 76-80세 집단은 66-70세 집단과 71-75세 집단보다 더 큰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 및 가족고독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세 가지 고독과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및 자기존중감의 관계

세 가지 고독과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및 자기존중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고독은 남녀 모두 세 개의 연령 모두에서 외향성 및 자기존중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연령의 남녀 노인들은 일관성 있게 낮은 외향성을 지닐수록, 낮은 자기존중감을 지닐수록 그리고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수록 더 큰 사회적 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낭만적 고독 역시 외향성 및 자기존중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사회적 고독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66-70세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낭만적 고독과 외향성간에 유의한 상관

표 5.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가족고독과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및 자기존중감 사이의 상관

고독	성별	연령집단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자기 존중감
사회적 고독	남	66-70세	-.582***	.680***	-.654***
		71-75세	-.463***	.541***	-.594***
		76-80세	-.823***	.744***	-.680***
	여	66-70세	-.528***	.537***	-.634***
		71-75세	-.513***	.452***	-.686***
		76-80세	-.344***	.339***	-.470***
낭만적 고독	남	66-70세	-.153	.276*	-.418**
		71-75세	-.350*	.397**	-.445***
		76-80세	-.299*	.449***	-.567***
	여	66-70세	-.066	.213	-.294*
		71-75세	-.452***	.246*	-.369***
		76-80세	-.135	.247*	-.142
가족고독	남	66-70세	-.337*	.485***	-.520***
		71-75세	-.224	.448***	-.347*
		76-80세	-.584***	.739***	-.806***
	여	66-70세	-.437***	.506***	-.562***
		71-75세	-.556***	.721***	-.729***
		76-80세	-.313**	.549***	-.615***

을 나타내지 않았고 여성 노인의 경우 66세-70세 집단에서는 낭만적 고독과 외향성 및 정서적 불안정성간에 그리고 76-80세 집단에서는 낭만적 고독과 외향성 및 자기존중감간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가족고독에서는 71-75세 남성노인들이 가족고독과 외향성간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남녀 노인 모두 가족고독과 외향성 및 자기존중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외향성이 낮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더 큰 가족고독을 경험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 그리고 가족고독에 미치는 외향성과 정서적 불안정성 및 자기존중감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 7, 8과 같다.

먼저 사회적 고독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세 개의 남성집단 즉 66-70세 집단, 71-75세 집단 그리고 76-80세 집단에 대한 회귀모형은 각각 $F(3, 49)=21.777, p<.001, F(3, 46)=12.508, p<.001$ 그리고 $F(3, 47)=43.182, p<.001$ 로 유의하였다. 표 6에 의하면, 66-70세 남성노인 집단에서 정서적 불안정성($\beta=.412, p<.001$)과 자기존중감($\beta=-.291, p<.05$)은 사회적 고독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전체변량의 57.1%를 설명하였다. 71-75세 남성집단

표 6. 사회적 고독에 대한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자기존중감의 회귀분석 결과

		<i>B</i>	<i>Std. Error</i>	<i>Beta</i>	<i>t</i>	<i>Tolerance</i>	<i>VIF</i>	<i>R</i> ²
66-70세	외향성	-.142	.103	-.174	-1.380	.547	1.827	.571
	정서적 불안정성	.369	.108	.412	3.409***	.600	1.666	
	자기존중감	-.398	.185	-.291	-2.153*	.480	2.081	
남 71-75세	외향성	-.202	.124	-.203	-1.630	.769	1.301	.449
	정서적 불안정성	.323	.154	.278	2.097*	.681	1.469	
	자기존중감	-.574	.233	-.344	-2.458*	.610	1.641	
76-80세	외향성	-.532	.106	-.569	-5.207***	.441	2.266	.734
	정서적 불안정성	.176	.125	.185	1.406	.327	3.060	
	자기존중감	-.243	.148	-.187	-1.644	.437	2.287	
66-70세	외향성	-.160	.108	-.199	-1.475	.506	1.976	.454
	정서적 불안정성	.206	.102	.251	2.014*	.595	1.681	
	자기존중감	-.422	.202	-.337	-2.086*	.354	2.822	
여 71-75세	외향성	-.024	.103	-.029	-.230	.448	2.232	.471
	정서적 불안정성	.023	.109	.024	.211	.565	1.771	
	자기존중감	-.876	.177	-.650	-4.956***	.410	2.439	
76-80세	외향성	-.156	.092	-.178	-1.692	.819	1.220	.247
	정서적 불안정성	.033	.128	.034	.259	.517	1.934	
	자기존중감	-.525	.199	-.371	-2.634**	.457	2.189	

에서는 자기존중감($\beta = -.344, p < .05$)과 정서적 불안정성($\beta = .278, p < .05$)이 사회적 고독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전체 변량의 44.9%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76-80세 남성집단에서는 외향성($\beta = -.569, p < .001$)만이 사회적 고독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전체 변량의 73.4%를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66-70세 및 71-75세 남성노인들의 사회적 고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존중감과 정서적 불안정성이지만, 76-80세 남성 노인들의 경우에는 외향성만이 사회적 고독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

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었다.

여성노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66-70세 집단과 71-75세 집단 그리고 76-80세 집단에 대한 회귀모형은 각각 $F(3, 59) = 16.357, p < .001, F(3, 75) = 22.271, p < .001$, 그리고 $F(3, 83) = 9.093, p < .001$ 로서 유의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66-70세 여성노인 집단에서는 자기존중감($\beta = -.337, p < .05$)과 정서적 불안정성($\beta = .251, p < .05$)이 사회적 고독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전체 변량의 45.4%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71-75세와 76-80세 여성 노인집단

표 7. 낭만적 고독에 대한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자기존중감의 회귀분석 결과

		<i>B</i>	<i>Std. Error</i>	<i>Beta</i>	<i>t</i>	<i>Tolerance</i>	<i>VIF</i>	<i>R</i> ²	
남	66-70세	외향성	.243	.185	.226	1.311	.547	1.827	
		정서적 불안정성	.098	.195	.083	.503	.600	1.666	.204
		자기존중감	-.933	.333	-.515	-2.801**	.480	2.081	
	71-75세	외향성	-.205	.189	-.158	-1.085	.769	1.301	
		정서적 불안정성	.294	.235	.194	1.254	.681	1.469	.250
		자기존중감	-.574	.356	-.464	-2.613**	.610	1.641	
	76-80세	외향성	.240	.258	.166	.928	.441	2.266	
		정서적 불안정성	.242	.306	.164	.790	.327	3.060	.336
		자기존중감	-1.106	.362	-.550	-3.057**	.437	2.287	
여	66-70세	외향성	.367	.234	.269	1.573	.506	1.976	
		정서적 불안정성	.023	.220	.016	.102	.595	1.681	.124
		자기존중감	-1.006	.437	-.472	-2.304*	.354	2.822	
	71-75세	외향성	-.514	.194	-.407	-2.657**	.448	2.232	
		정서적 불안정성	-.099	.205	-.066	-.483	.565	1.771	.210
		자기존중감	-.240	.333	-.115	-.721	.410	2.439	
	76-80세	외향성	-.094	.135	-.082	-.699	.819	1.220	
		정서적 불안정성	-.353	.187	-.278	-1.888	.517	1.934	.067
		자기존중감	-.558	.291	-.301	-1.920	.457	2.189	

에서는 자기존중감(71-75세집단: $\beta=-.650$, $p<.001$, 76-80세 집단: $\beta=-.371$, $p<.01$)만이 사회적 고독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각각 전체변량의 47.1%와 24.7%를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66-70세 여성노인들의 사회적 고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존중감과 정서적 불안정성이었으나 71-75세 및 76-80세의 여성노인들의 경우에는 자기존중감이 사회적 고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었다.

표 7은 낭만적 고독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66-70세 남성노인 집단과 71-75세 남성노인 집단 그리고 76-80세 남성노인 집단에 대한 회귀모형은 각

각 $F(3, 49)=4.175$, $p<.01$, $F(3, 46)=5.107$, $p<.01$, 그리고 $F(3, 47)=7.927$, $p<.001$ 로 유의하였다. 66-70세 ($\beta=-.515$, $p<.01$), 71-75세($\beta=-.464$, $p<.01$) 그리고 76-80세 집단($\beta=-.550$, $p<.01$)의 남성 노인 모두에서 자기존중감은 낭만적 고독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각각 전체 변량의 20.4%, 25% 그리고 33.6%를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66-70세, 71-75세 그리고 76-80세 남성 노인들의 낭만적 고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존중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노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66-70세 여성 노

표 8. 가족고독에 대한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자기존중감의 회귀분석 결과

		<i>B</i>	<i>Std. Error</i>	<i>Beta</i>	<i>t</i>	<i>Tolerance</i>	<i>VIF</i>	<i>R</i> ²
66-70세	외향성	.042	.097	.068	.428	.547	1.827	.318
	정서적 불안정성	.191	.103	.282	1.854	.600	1.666	
	자기존중감	-.405	.175	-.393	-2.307*	.480	2.081	
남 71-75세	외향성	-.030	.130	-.034	-.228	.769	1.301	.216
	정서적 불안정성	.372	.161	.364	2.303*	.681	1.469	
	자기존중감	-.189	.245	-.129	-.771	.610	1.641	
76-80세	외향성	.015	.120	.015	.122	.441	2.266	.694
	정서적 불안정성	.325	.142	.323	2.288*	.327	3.060	
	자기존중감	-.794	.168	-.576	-4.725***	.437	2.287	
66-70세	외향성	-.089	.107	-.123	-.838	.506	1.976	.362
	정서적 불안정성	.197	.100	.265	1.964	.595	1.681	
	자기존중감	-.354	.199	-.310	-2.776*	.354	2.822	
여 71-75세	외향성	.048	.079	.062	.608	.448	2.232	.646
	정서적 불안정성	.410	.084	.447	4.887***	.565	1.771	
	자기존중감	-.625	.136	-.491	-4.581***	.410	2.439	
76-80세	외향성	-.066	.086	-.072	-.775	.819	1.220	.411
	정서적 불안정성	.241	.118	.239	2.037*	.517	1.934	
	자기존중감	-.619	.184	-.419	-3.359***	.457	2.189	

인집단과 71-75세의 여성 노인집단에 대한 회귀모형은 각각 $F(3, 59)=2.795, p<.05$ 과 $F(3, 75)=6.661, p<.001$ 로 유의하였으나 76-80세 여성 노인집단에 대한 회귀모형($F(3, 83)=1.992, p>.05$)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66-70세 여성 노인집단에서는 자기존중감($\beta=-.472, p<.05$)만이 낭만적 고독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전체 변량의 12.4%를 설명하였으나 71-75세 여성 노인 집단에서는 외향성($\beta=-.407, p<.01$)만이 낭만적 고독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전체 변량의 21.0%를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66-70세 여성노인

들의 낭만적 고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존중감이었고 71-75세 여성노인들의 낭만적 고독에는 외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76-80세 여성노인들의 경우에는 회귀모형 자체가 유의하지 않음으로써 외향성과 정서적 불안정성 및 자기존중감 중 어느 것도 76-80세 여성노인들의 낭만적 고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고독의 경우 66-70세 남성 노인집단과 71-75세 남성 노인집단 그리고 76-80세 남성 노인 집단 각각에서 회귀모형은 $F(3, 49)=7.610, p<.001, F(3, 46)=4.214, p<.01$ 그리고 $F(3, 47)=35.597,$

$p<.001$ 로 모두 유의하였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66-70세 남성 노인집단에서는 자기존중감($\beta = -.393, p<.05$)이, 71-75세 남성 노인집단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beta=.364, p<.05$)이 그리고 76-80세 남성 노인집단에서는 자기존중감($\beta=-.576, p<.001$)과 정서적 불안정성($\beta=.323, p<.05$)이 가족고독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설명량은 각각 전체 변량의 31.8%, 21.6% 그리고 69.4%였다.

여성 노인들의 경우에도 3개 연령집단의 회귀모형은 각각 $F(3, 59)=11.152, p<.001, F(3, 75)=45.618, p<.001$ 그리고 $F(3, 83)=19.300, p<.001$ 로서 유의하였다. 66-70세 여성 노인집단에서는 자기존중감($\beta = -.310, p<.05$)이, 71-75세 여성 노인집단과 76-80세 여성 노인집단에서는 자기존중감(71-75세 집단: $\beta=-.491, p<.001, 76-80$ 세 집단: $\beta=-.419, p<.001$)과 정서적 불안정성(71-75세 집단: $\beta=.447, p<.001, 76-80$ 세 집단: $\beta=.239, p<.05$)이 가족고독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었고 설명량은 각각 전체 변량의 36.2%, 64.6% 그리고 41.1%를 설명하였다. 71-75세 남성 노인들만을 제외하고 남녀 노인들의 가족고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존중감이었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71-75세 집단과 76-85세 집단의 남녀 노인들의 가족고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요약하면 성격변인 중 외향성은 76-80세 남성노인의 사회적 고독과 71-75세 여성노인의 낭만적 고독에만 영향을 주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남녀 노인들의 사회적 고독과 가족고독에 주로 영향을 주었으나 자기존중감은 남녀 노인들의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 및 가족고독에 일관성있게 영향을 미치는 성격변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세 가지 성격변인 어느 것도 76-80세 여성노인의 낭만적 고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이 연구는 66세부터 80세까지의 남녀 노인(남: 154명, 여: 229명)들을 3개의 연령집단(66-70세, 71-75세, 76-80세)으로 구분하고 중다차원적 고독 척도인 성인용 사회적, 정서적 고독척도(SELSA)를 사용하여 먼저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 그리고 가족고독을 경험하는 노인들의 비율을 확인하고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이 세 가지 고독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세 가지 고독과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그리고 자기존중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남녀 노인들 모두 가족고독을 경험하는 비율은 가장 낮았고 낭만적 고독을 경험하는 비율은 가장 높았으며, 연령증가와 함께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을 경험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및 가족고독에서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낭만적 고독을 경험하였고, 가장 연령이 많은 76-80세 집단에서는 남성노인들이 여성노인들보다 더 큰 가족고독을 경험하였다. 또한 남녀 모두 76-80세 집단의 노인들이 66-70세 집단과 71-75세 집단의 노인들보다 더 큰 사회적, 낭만적 그리고 가족고독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 가지 고독과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및 자기존중감의 관계에서, 71-75세의 남성노인들만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의 남녀 노인들에서 사회적 고독과 가족고독은 외향성 및 자기존중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낮은 외향성을 지닐수록, 낮은 자기존중감을 지닐수록 그리고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수록 더 큰 사회적 고독과 가족고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낭만적 고독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었으나 66-70세 남성노인들은

낭만적 고독과 외향성간에 그리고 66-70세 여성노인들은 낭만적 고독과 외향성 및 정서적 불안정성간에 그리고 76-80세 여성노인들의 경우에는 낭만적 고독과 외향성간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66-70세와 71-75세 노인 남성의 사회적 고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자기존중감이었고, 76-80세 노인남성의 사회적 고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외향성이었다. 여성노인의 사회적 고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66-70세 집단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자기존중감이었고 71-75세 집단과 76-80세 집단에서는 자기존중감이었다. 남성노인들의 낭만적 고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일관성있게 자기존중감이었고 66-70세의 여성 노인집단에서도 자기존중감은 낭만적 고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71-75세 여성노인단에서는 외향성만이 낭만적 고독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그러나 76-80세 여성노인들의 경우에는 회귀모형 자체가 유의하지 않음으로써 세 가지 성격변인 어느 것도 낭만적 고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남성 노인들의 가족고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66-70세 집단은 자기존중감이, 71-75세 집단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자기존중감이 그리고 66-70세 집단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이었으나 여성노인들의 경우에는 66-70세 집단에서는 자기존중감이 그리고 71-75세 집단과 76-80세 집단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자기존중감이 가족고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남녀 노인들 모두 Drennan 등(2008)의 연구와 일치되게 세 가지 고독 중 낭만적 고독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가족고독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보다 더 큰 낭만적 고독을 경험하였다. 이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자들 중 남성노인의 79.9%와 여성노인의

37.6%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여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낭만적 고독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남녀 모두 세 가지 고독 중 낭만적 고독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상실이나 이별로 특징되는 노년기 동안에도 여전히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흥미롭게도 가족고독을 경험하는 남녀 노인들의 비율은 매우 낮아 Victor 등(2005)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76-80세의 연령집단에서는 남성노인들이 여성노인들보다 더 큰 가족고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Cramer와 Barry(1999) 및 Drennan 등(2008)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76-80세 남성 노인들의 가족고독 점수도 5점 척도에서 3점 미만이어서 한국 노인들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75세 이상의 고령의 남성노인들에게는 가족구성원들의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고독을 경험하는 정도에서 가장 연령이 많은 76-80세의 남녀 노인들이 66-70세와 71-76세의 남녀 노인들보다 일관성 있게 더 큰 사회적 고독과 낭만적 고독 및 가족고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증가와 함께 고독을 경험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Paúl과 Ribeiro(2009)의 연구는 물론 고독은 65세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75세 이후부터 크게 증가한다는 Pinquart와 Sorensen(2001)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였다. 연령과 함께 배우자나 가까운 친인척 혹은 친구의 상실로 사회적 연결망이 축소됨으로써 고독을 경험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Pinquart와 Sorensen(2001)은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5-15%가 빈번한 고독을 경험하고 대다수의 노인들은 심각하게 고독하지 않다고 보고하였으나, 노인들의 고독경험 비

율은 성별과 연령은 물론 고독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됨으로써 고독은 단일차원적 개념이 아니라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선행연구들(DiTommaso & Spinner, 1997; Dykstra & Gierveld, 2004; Paúl & Ribeiro, 2009)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박영주 등, 2004; Caccioppo et al., 2006; Haines, Scalise & Ginter, 1993; Long & Martin, 2000; Luanaigh & Lawlor, 2008)과 일치되게 전체적으로 외향성과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더 큰 사회적, 낭만적, 가족고독을 경험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회귀분석결과 세 가지 성격변인들의 영향력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자기존중감은 노년기 고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됨으로써 낮은 자기존중감이 고독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요인이 분명하였다. Coopersmith (1981)에 의하면, 자기존중감은 개인이 노력을 통하여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지에 관한 태도와 신념이므로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쉽게 고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향성은 개인의 사회적 고독과 가장 큰 관련이 있는 성격특성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외향성은 76-80세 남성 노인들의 사회적 고독과 71-75세 여성 노인들의 낭만적 고독에만 영향을 줄 뿐이었다. 따라서 노년기의 고독은 그것의 유형이 어떠한 개인의 기질적 특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외향성이나 정서적 불안정보다 환경적 영향에 민감한 자기존중감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76-80세의 여성노인들의 낭만적 고독은 세 가지 성격변인들과

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의 여성노인들은 개인적 특성보다 상황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 증거로서 이 연구에 포함된 66세에서 80세 여성노인들 중에서 단지 37.6%가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들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76-80세 여성들의 낭만적 고독은 성격변인의 문제이기보다는 배우자 유무와 같은 배경변인들과 더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노년기 고독과 관련된 성격특성으로 외향성과 정서적 불안정성만을 연구하였으나 호감성과 성실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도 고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과 함께 5요인 성격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이 연구는 66세부터 80세까지의 연령집단만을 횡단적으로 연구하였으나 평균수명의 증가는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고독은 전생애 동안 경험되는 정서상태이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80세 이후의 연령은 물론 성인기, 나아가 청년기나 아동기까지도 포함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고독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Pinquart와 Sorensen (2001)의 주장대로 고독이 연령에 따라 얕은 U자 형태의 변화를 보이면서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노년기 고독은 단순히 배경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격변인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했을 뿐 아니라 고독은 다차원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영주, 정혜경, 안옥희, 신행우 (2004). 노인의 외로움과 건강행위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노인간호학회지*, 6(1), 91-98.
- 통계청 (2010). 2010 고령자 통계. <http://kostat.go.kr/>에서 인용.
- Cacioppo, J. T., Hawkley, L. C., Ernst, J. M., Burleson, M., Berntson, G. G., Nouriani, B., & Spiegel, D. (2006). Loneliness within nomological net: An evolutionary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 1054-1085.
- Coopersmith, S. (1981). *Self-esteem Inventories*.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cal Press.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4). Stability and change in personality from adolescence through adulthood. In C. F. Halverson, Jr., G. A. Kohnstamm, & R. P. Martin (Eds.), *The developing structure of temperament and personlaity from infancy to adulthood*. Hillsdale, NJ: Erlbaum.
- Cramer, K. M., & Barry, J. E. (1999). Conceptualizations and measures of loneliness: A comparison of subsc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491-502.
- DiTommaso, E., Brannen, C., & Best, L. A. (2004). Measurement and validity characteristics of the short version of the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4(1), 99-119.
- DiTommaso, E., & Spinner, B. (1993).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s (SELSA).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27-134.
- DiTommaso, E., & Spinner, B. (1997).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A reexamination of Weiss' typology of loneli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 417-427.
- Drennan, J., Treacy, M., Butler, M., Byrne, A., Fealy, G., Frazer, K., & Irving, K. (2008). The experience of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among older people in Ireland. *Ageing & Society*, 28, 1113-1132.
- Dugan, E., & Kivett, V. (1994). The importa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to loneliness among very old rural adults. *The Gerontologist*, 34, 340-346.
- Dykstra, P. A., & Gierveld, J. (2004). Gender and marital-history differences in emotional and social loneliness among Dutch older adults. *Canadian Journal on Aging*, 23(2), 141-155.
- Ernst, J. M., & Cacioppo, J. T. (1999). Lonely heart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onelines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8(1), 1-22.
- Fahey, T., & Murray, P. (1994). *Health and autonomy among the over-65s in Ireland*. Report 39, National Council for the Elderly, Dublin.
- Forbes, A. (1996). Education and debate, caring for older people: Loneliness. *British Medical Journal*, 313, 352-354.
- Gierveld, J. (1998). A review of loneliness: Concept and definitions, determinants and

- consequences. *Reviews in Clinical Gerontology*, 8, 73-80.
- Haines, D. A., Scalise, J. J. & Ginter, E. J. (1993). Relationship of loneliness and its affective elements to self-esteem. *Psychological Reports*, 73, 479-482.
- Johnson, J. E., Waldo, M., & Johnson, R. G. (1993). Research considerations: Stres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in the rural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9(10), 24-29.
- Kramer, S. E., Kapteyn, T. S., Kuik, D. J., & Deeg, D. (2002). The association of hearing impairment and chronic diseases with psychosocial health status in older age.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4, 122-137.
- Lauder, W., Sharkey, S., & Mummery, K. (2004). A community survey of lonelin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6(1), 88-94.
- Long, M. V., & Martin, P. (2000). Personality, relationship closeness, and loneliness of oldest old adults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5B(5), 311-319.
- Lunaigh, C. Ó., & Lawlor, B. A. (2008). Loneliness and the health of older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3, 1213-1221.
- O'Leary, E., O'Connéide, D., & Staunton, C. (2004). *The SIZE Research Project: A summary of the work conducted in 2003*. Counselling and Health Studies Unit and Traffic Research Unit, University College Cork, Cork, Ireland.
- Paúl, C., & Ribeiro, O. (2009). Predicting loneliness in old people living in the community. *Reviews in Clinical Gerontology*, 19, 53-60.
- Paúl, C., Ayis, S. & Ebrahim, S. (2006). Psychological distress, loneliness and disability in lod age. *Psychol Health Med*, 11, 221-232.
- Pinquart, M., & Sorensen, S. (2001). Influences on loneliness in older adults: A meta analysi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3(4), 245-266.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utasalo, P., & Pitkala, K. (2003). Loneliness among older people. *Reviews in Clinical Gerontology*, 13, 303-311.
- Russell, D. W. (1996). UCLA Loneliness Scale(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20-40.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Steverink, N., Westerhof, G. J., Bode, C., & Dittmann-Kohli, F. (2001). The personal experience of aging, individual resources,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65B, 364-373.
- Victor, C., Scambler, S., Bond, J., & Bowling, A. (2000). Being alone in later life: Loneliness, social isolation and isolation. *Rev Clin Gerontol*, 10, 407-417.

- Victor, C., Scambler, S., Bowling, A. & Bond, J. (2005). The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loneliness in later life: A survey of older people in Great Britain. *Ageing & Society*, 25(3), 357-375.
- Wang, J., Snyder, M., & Kaas, M. (2001). Stress, loneliness, and depression in Twaiwaness rural community-dwelling el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8(3), 339-347.
- Weiss, R. S.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Weiss, R. S. (1973).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IT Press.
-

1차 원고 접수: 2011. 04. 09

수정 원고 접수: 2011. 05. 11

최종 게재 결정: 2011. 05. 12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Personality Variables in Old Age

Hwee-Sook Jang

Na-Yeo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proportion of social, romantic and family loneliness, this study examined if there's differences in three types of loneliness according to sex and age, what relationship was there between loneliness and personality variables, that is extroversion, neuroticism and self-esteem. As results, old adults had the highest proportion in romantic loneliness and the lowest proportion in family loneliness and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was increased with age. Women experienced more romantic loneliness than men and the men of 76-80 age group experienced more family loneliness than women. Old adults of 76-80 age group experienced more social, romantic and family loneliness than the other two age groups. Except men of 71-75 age group, social and family loneliness negatively correlated with extroversion and self-esteem and positively with neuroticism. Although similar correlation pattern was found in romantic loneliness, some variation appeared according to age group. It was confirmed three personality variables influenced three types of loneliness.

Keywords: old age, social loneliness, romantic loneliness, family loneliness, personality variable

